

삼위 일체 대축일

기도서 P. 315 C해

제1독서(잠 인 8, 22-31)  
제2독서(로 마 5, 1-5)  
부 음(요 한 16, 12-15)

# 숲 정 이

발행인	김 한 철
인세인	김 불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시서노당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론



## 삼위 일체 대축일

### 강 인 찬 신부

성부, 성자, 성신께 진심으로 영광과 찬미를 드리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자. 또한 성부 성자 성신의 완전한 일치에 참여하기 위해 하느님 안에 하나되도록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한번 성서를 통해서 알아보자. <그분은 홀로 불멸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이 일찍 본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티모 6, 16) 로마서 11장에서는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에 무한한 사랑과 자비, 완전하심(마태 5, 45) 한량없는 지혜와 자상하심(마태 6, 26 이하)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심(요한 3, 17) 그분 아니라 성서 전반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점은 성서의 그분을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대하고 처신하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그분을 알고 있는 만큼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서의 하느님을 잊고 내 나름대로의 하느님으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자.

다음으로 성부 성자 성신의 사랑을 알아보자. 성부의 사랑 :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 없이 보내 주신 성부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요한 3, 16, 로마 8, 32, I요한 4, 9)  
성자의 사랑 : 양들을 위하여 복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 (요한 10, 15)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요한 15, 9, 17, 23)  
종이 아니라 빛으로까지 불러주시는 성자의 사랑(요 15, 15)  
우리의 구원을 죽으시기까지 하신 성자의 사랑(요 5, 6, I베드 3, 18, 갈 2, 20)  
성신의 사랑 :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비취주시는 성신 (요 14, 16)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성신 (요 16, 13-16).  
우리안에 계시는 성신 (II코린 3, 16, 6, 19)  
우리들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성신 (로마8, 9)  
성서에서 잠깐 살펴 본 것처럼 성삼위의 사랑은 무한하다. 이 크신 사랑에 끊임없는 응답의 생활과 감사를 드려야겠다. 또한 사랑 자체가시오 사랑으로 일치하시는 성삼위께 일치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생활로 더욱 일치하자. 지식과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과 생활로서 말이다. 응답의 생활을 하지 못할진대 하느님의 사랑을 무시한 것이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루카 12, 9)  
(정읍 천주교회 주임신부)



## 두려워하지 말라

—성모여, 지켜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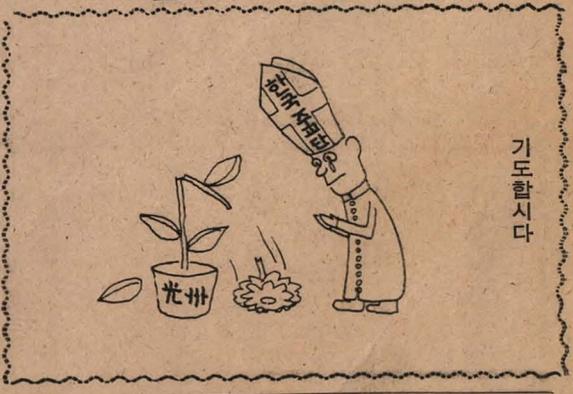
“인류 구원사업을 위해 십자가에 죄없이 처절하게 죽어 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시던 마리아, 때때로 우리에게 발현하여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기도를 요청하시던 어머니,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위로자이신 자애로우신 어머니, 죄악으로 질탕하게 젖어 있는 이 세상 구원의 등불인 순결하신 어머니,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잊지 마소서.

어머니, 60년의 4월이 우리에게만 잔인했었지만, 지금 80년은 5월이 잔인했습니다. 동족끼리,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그들을 믿고 생업에 전념하는 시민들이 총부리를 마주 했으니, 이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당신은 다 아십니다. 하기가 성경말씀대로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마태오 10, 26) 다만, 진실과 소위 「유언비어」만이 춤을 추는 세상이라서 가깝할 따름입니다.

당신의 승천 대축일에 이 땅에는 36년의 질곡을 푸는 해방이 있었고, 당신의 원죄없이 잉태되신 축일에 18년의 사슬의 일부가 끊어지는 사면령이 있었습니까. 이 열마나 기막힌 인연입니까? 부디 이 땅을 버리지 마소서. 당신의 아들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박해를 작오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부디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라는 진리를, 알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제발 알아듣게 하소서.”

늦게사 우리는 이 기도를 버리지 마옵소서.

## 숲 정 이 산책



#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발생한 비극적 광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하여 주교님들의 간담회를 가졌다.
2. 광주 윤 대주교님은 참석 불능이었고, 해외 여행중에 계신 3명의 주교님과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한 몇몇 주교님들을 제외하고 9명의 주교님들이 참석하였다.
3. 모든 주교들은 광주사태가 더 이상의 유혈이 없이 무사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비는 길밖에 도리가 없음을 믿고 별첨과 같이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기도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4. 광주시민과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윤 대주교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교들이 그 쓰라린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서한을 보내드리기로 하였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야고보 5, 13)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도를 통하여 광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같은 민족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 민족이 근대에 당해보지 못한 시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사상자를 낸 유혈사태가 광주시를 비롯한 인근 전역에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국민이 참으로 긴장과 불안과 슬픔속에 내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견해차로 빚어진 이러한 불행에 물리적 힘과 힘이 정면 충돌하여 같은 형제끼리의 비 이성적 투쟁은 시시각각 가속화하고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책임일.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조용히 이성을 되찾고 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남을 추궁하고 물아 세 우기에 앞서 형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같은 땅에서 같은 핏줄의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비 인간적 충돌은 저지해야 하겠습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군도 민간인도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절제적인 것으로 내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정적 흥분과 독선적 집념을 벗어 버리고 형제적 화해의 기반을 슬기롭게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땅에 회개와 화해의 성령이 임하도록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미 여러 수도원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기도로 하느님께 평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형자매들은 지금 단식과 기도로 주님께 애원해야 되겠습니다. 각 본당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혼신을 다하여 용서와 은총을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삼년 육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야고보 5, 17)

주께서는 에집트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실랑민들을 고향땅에 돌려 보내시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서 희생된 모든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해 주시고 소모가 일고 있는 모든 지역의 형제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위정자들은 냉철한 자기반성으로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평온한 나라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1980. 5. 23

한국 천주교 주교단

## 謹 吊

빛고을 光州에서  
하느님 마음을 따라 바르게 살다가  
비명(非命)에 숨진 분들의 명복(冥福)을 비나이다.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저들의 바램(所望)을 이루어 주소서.

성모여,  
저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 주소서.  
피를 마신 이 땅의 통곡을 거두어 주소서.

1980년 성모성월애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최 남 수(아빨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 McGREGOR Weekend

맥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유율리나나

□광주사태 대책일지□

“교구 사제단, 긴급총회 소집”

—광주사태 희생자를 위한 위령미사 봉헌, 헌혈운동 참여키로—

전주교구 사제단은 지난 5월23일 긴급 사제총회를 열어 광주사태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비극적인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사제단은 제1차적인 활동으로 ① 광주사태에서 희생된 민주시민들을 위한 위령미사 봉헌, ②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운동 참여, ③ 광주사태에 대한 올바른 계몽에 주력하기로 했다.

갑자기 마련된 이날밤 위령미사는 중앙성당에서 봉헌되었는데, 주교님을 주례로 하여 60여명의 사제단과 3백여 신자들이 참례하여 교인들의 명복과 국가의 평화를 빌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서울에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려 시국에 대한 논의끝에 별항 (2면 참조)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긴급 상임위원회 열어”

—광주교구 방문 위로 및 광주사태에 대한 올바른 계몽펴기로—

교구 정평은 사제총회에 앞서 지난 20일밤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광주사태에 따른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상임위원회는 대표를 광주교구에 파견하여 위로의 인사를 전하기로 하고, 우선은 광주사태에 대한 올바른 계도활동을 적극 펴기로 하였다.

“교구 인성회 상임위원회도 열려”

—광주교구에 긴급구호기금 100만원 전달키로—

교구 인성회도 광주사태와 관련없이 소집된 23일 상임위원회에서 광주의 피해복구등을 위해 100만원의 성금을 광주교구 인성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 광주사태 피해복구 및 부상자 치료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 일 지 5월20일...정평 긴급 상임위원회 소집
- 5월21일...광주교구에 위로 인사차 김재덕 주교님과 김봉희 신부 등 광주로 떠났다가 장성에서 되돌아옴.
- 5월23일...사제단 긴급 임시총회 소집, 광주사태 희생자를 위한 위령미사봉헌
- 5월25일...교구내 각 본당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올바른 계도활동 펴
- 5월27일...광주사태의 줄더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6분의 사제와 두분의 정평위원이 광주로 출발, 정읍과 담양에서 되돌아옴.
- 5월29일...주교님과 사무처장, 정평회장이 광주교구를 방문, 윤 대주교님과 교구 신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성금을 전달.

요심이 (356)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열)  
 전화 ③ 6219

※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딩)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장공사 정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 운동기구, 추리닝, 유니폼 열절  
 ※ 교우 자매님께 염가 제공  
**경주체육사**  
 (인후동 전여고 삼거리)  
 주 김수산나(춘자)  
 전화 4-0681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철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188 (자 ②0369)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제공예**  
 주 이현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식, 보료  
**문화양행**  
 오증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 광주사태 피해 시민들을 위해 정성어린 성금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1. 성체수녀원 종신 허원식...6월 5일<목> 오후 2시
- 2. 성모 기사회 모임...6월 7일 오후2시, 파티마 성당에서  
※ 오기순 신부님의 특별강론 있습니다.
- 가톨릭센터의 식당과 다방 정기휴일 변경...매월 1일과 15일

(중암)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정현  
          ③3874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김병규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 2.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 3. 상지회 연기: 6월 11일 오후 7시
- 4. 합동 혼배 교리: 4일~5일 오후 8시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5. 성심부녀회 총회: 6월 4일 오전 10시30분, 강당
- 6. 첫 영성체: 14일<토> 어린이미사 중
- 7. 분당 살림도 어려워졌습니다 교무금을 월별로 납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0,73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근  
          사도 회장 박춘근

- 1. 애령회 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애령회 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님들께서는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3. 성서 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 4.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우리는 하루에 기도의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 5.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열왕기, 하마카베오 하편
- 6. 축! 천사의 모후 꾸리아 탄생: 단장-박태복, 부단장-이일규, 서기-채수원, 회계-최안젤라 본당의 꾸리아 행사(25일)에 협조해 주신 분들 유영철(20,000원), 이홍재(5,000원), 노인석(3만원)
- 지난주 봉헌금: 151,755원  
주교님의 회갑 축의금: 180,50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오열

- 1. 6월은 예수 성심성월 사회안정과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2. 새로 탄생하시는 16명 형제께 축하합니다 계속 교리 있습니다
- 3. 주일학교 어린이는 교리반으로, 전생님들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교리-토요일 오후 3시, 미사-4시 ※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4. 유아세례: 6월 6일 오전 9시30분 대부모님 꼭 모시고 나오세요
- 5. 호도관광은 당분간 무기한입니다 ※ 사계양성 저금통 120개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 습니다. 반장님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세요. 납부액-111,610원
- 지난주 봉헌금: 244,41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 1. 6월은 예수 성심성월 사회안정과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2. 첫 참례 7: 7일 저녁미사 후
- 3. 복자부녀회 및 애령회: 6월 4일 오전 10시
- 4. 첫 영성체 교리: 6월 2일 매일 5~6시 부모님들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 5.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최순석 형제 배)
- 6.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허테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범신부님 지도
- 지난주 봉헌금: 270,85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함형수

- 1. 유아세례: 다음주 공식미사 전(9시 30분)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회의실
- 3. 반장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어머니회원 모임: 6월 4일(오후 2시) 사제관
- 5. 반상회: 저녁 7시 30분 3일<화>-1반, 4일<수>-2반, 5일<목>-3반, 6일<금>-4반
-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김재열·강남준, 신자들의 기도-강순옥
- 지난주 봉헌금: 147,875원 교무금: 63,000원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6월은 예수 성심성월
- 2. 사도회 월례회: 6월 1일
- 3. 누깰다 부녀회: 6월 7일
- 4. 주일학교 후원회: 6월 3일 오후 2시
- 5. 미남팀 신축기금 속히 납부바랍니다
- 6. 신축기금 내주신분: 이복남(35만원), 유재환(2만원) 중앙성당 신임액중 이강호(5천원)
- 지난주 봉헌금: 244,61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기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유수중

- 1. 견진: 오늘 공식미사 중에
- 2. 주일학교 소식: 도서기증-은영은, 책장기증-성희권, 교과서 판매마감-오늘까지
- 3.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해 주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 4.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사회자-이신홍, 독서-①최병래 ②박종구 공식미사: 사회자-서정옥, 독서-①김병오 ②박도식 저녁미사: 사회자-김윤주, 독서-①경양수 ②이진홍
- 5. 교무금은 월납제이오니 월별로 봉헌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397,76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2. 예수 성심성월: 오늘부터
- 3. 꾸리아 회합: 다음주 오후 1시 30분
- 4. 봄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분 오늘까지 보세요
- 5. 성모기사회 월례회: 다음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 소풍날: 장소-상그마 학부형들의 많은 참석과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73,000원 어린이헌금: 1,620원 교무금: 62,500원